

2018년 11월 24일 한국의교사연구회

조선사록 역주 4, 주지번 (朱之藩), 『봉사조선고(奉使朝鮮稿)』 (pp. 126-238)

(참고문헌: 김한규, 사조선록 연구 - 송 명 청 시대 조선 사행록의 사료적 가치, 서강대학교 출판부, 2011. 아래 page 번호는 참고문헌의 내용)

- 주지번의 황화집은 모두 259 수의 시로 구성되어 있는데 조선을 방문한 역대 중국 사신 중 가장 많은 수의 시로 창화시의 보고라 할 수 있음. 이중 대부분은 원접사(遠接使) 서경(西峒) 류근(柳根)과의 창화시로 주지번이 압록강을 건너 조선에 입경할 때부터 시작되어 압록강을 건너 출경할 때까지 계속되었음 (pp. 321-2)
 - 공용경은 241 수, 주지번의 부사인 양유년(梁有年)은 99 수
- 봉사조선고 1 권 전반부는 주지번의 창화시가 실려 있고, 봉사조선고 2 권인 『동방화음(東方和音)』에는 그 짝을 이루는 류근이 지은 창화시들로 구성되어 있음
 - 맺음말 - “평가는 후대에 맡기고, 한때 일을 함께 한 정을 기록하여 오래도록 전하고자 한다.” → 인간적인 교류에 대한 진심이 엿보이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진정한 마음이 반영 (cf. 동월 - 명나라로 돌아간 뒤에 조선 관리들에 대한 언급이나 안부가 전혀 없었음.)
 - 이전 사신들의 황화집이 사신 자신의 창화시들로만 구성되어 있었던 것과 대조적으로 조선 관료들의 창화시를 함께 수록함으로써, 조선 관료들의 창화 수준을 높이 평가했음을 짐작할 수 있음. 동월이 기행문 형식으로 남긴 것은 조선의 창화시 수준을 얕잡아 보았기 때문은 아닐까? 기록할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서. (성종의 시재를 폄하하는 듯한 기록도 있었음) → 명조 전성기의 절정에 있었던 시기에 파견된 명사로써 명말 파견된 주지번과 비교할 때 조선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 좋은 대조를 보여줌
- 봉사조선고 1 권 후반부는 주지번이 조선의 국경을 넘어 명으로 돌아가는 길의 여정과 지인들에 대한 시 및 여러가지 산문들로 구성되어 있어 자순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알 수 있음.
- 중국과 조선의 문화 교류에도 기여
 - 주지번은 문장력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글씨와 그림에도 상당한 재능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짐 → 자신의 작품인 「천고최성첩(千古最盛帖)」을 선조와 원접사 류근에게 주었는데, 이 화첩은 역대 중국 명가들의 시문 내용을 그림으로 그리고, 그 원문을 필사하여 첩 형식으로 꾸민 것으로 조선 화단에 큰 영향을 미쳤음. 류근이 받은 부분을 허씨 등 다른 집에서 본떠서 모본(模本)이 널리 유행.

- 전서(篆書)에 대한 고증서, 중국 당대 吳派 화풍을 보여주는 화첩을 조선에 소개. 한석봉의 글씨, 조선의 시가집, 허난설헌의 시집 『난설헌집(蘭雪軒集)』을 중국 문단에 소개.

I. 창화시 부분

- 「한음 이 중추에게 드림」 : 한음 이덕형을 골상이 기이한 장인(丈人)이라 추켜세움. “서로 만나 시구 이으며 계속 주고받으면서, 고달픈 새 명홍(冥鴻)¹이 멀리서 다투어 날아간다.”
- 허성소 도감(都監), 조공진 찰방(察訪), 조(趙) 도감(都監), 표숙도 사역, 박경서 사역, 이죽계 사역, 남죽유 사역 등 주지번에게 도움을 주었던 조선 하급 관리들에게도 이별하면서 각각 시를 지어주면서, 각 개인에 대한 메모를 함께 남기기도 함. → 각 개인에 대한 인간적인 관심과, 진심으로 그들을 기억하고자 하는 마음이 반영된 듯.
 - “<나와 같은 무오년생으로, 을미년에 같이 처음 등용되었다.> ... 마조보고 실권 없는 관아라고 한탄 말고, 산봉우리 사이 어지럽히며 흐르는 물 여유롭게 읊조리세. 함께 대화 노래하며 매년 향기 받았지만 십년동안 자미랑으로 임명되지 못하였다. 방유에서 배우려고 안새는 낮은 곳에 살지만, 위엄 있는 봉황은 임금 지키며 천 길 높이 날아오른다” (조공진 찰방에 대하여) → 높은 자리로 등용되지 못하고 한직에 머무르고 있는 동갑내기에 대한 연민이 엿보이는 구절.
 - “<아들 정로가 있어, 능히 그 가업을 이을 수 있어 한경의 연회 때에 명을 받들어 신중하게 일을 했다.>” (표숙도에 대하여)
 - “<도중에 산천 지명을 물으면, 모두 그가 가르쳐 주었다.>” (박경서에 대하여)
- 주지번이 류근과 헤어지면서 남긴 시들은 주지번과 류근이 뜻이 일치하고 마음이 매우 잘 맞았음을 짐작할 수 있게 해주고, 단순히 외교적 수사가 아닌 진심으로 서로의 인품을 칭송하고 헤어짐을 아쉬워하는 마음이 담겨있음
 - 「서경(西峒)² 노장이 외딴 산에 은거하는 명승을 그려보여, 긴 노래지어 이별의 뜻 전하고, 아울러 화답의 가르침 기대하면서, 헤어지는 마음을 위로한다」 - “물고기와 물처럼 바야흐로 기뻐하며 이미 사랑하는 사이 되었는데 ... 재주있는 이 가운데서 그대 특히 뛰어나서, 아홉 살에 눈썹치켜 올리며 시 지을 줄 알았다. 거대한 자라가 일찍 낚여져 다투어 아름다움을 뽐내었지만, 언제나 한골짜기 탐닉하여 마음으로 자신을 잘 알았다.

¹ 속세를 떠나 뜻을 고상하게 가지는 사람을 비유.

² 류근의 호.

임금의 은혜 때문에 차마 은거하겠다 말하지 못했지만, 어찌 하라 성품이 숲이나 개천과 가까우니. … 내 두서없는 말 내뱉으면 그대는 약 되는 말하면서, 백편의 시를 주고받으며 붓을 놓지 않았다. 말마다 동조하고 마음도 함께하니, 풍류로운 뜻과 기상이 넓은 하늘로 비상한다. … 그대에게 줄 선물 없고 오직 넓은 시구뿐이니, 베개 높이 베고 누워 잘 드시느니만 못하리라”

- 「의주에 이르러 서경(西峴) 상국(相國)에게 유별하는 읍시」 - “압록강이 헤어지는 사람 가로막고 끊어놓으니, 하늘처럼 큰 시름 가라앉히기 너무 어렵다.”

- 「회문시(回紋詩)」 - 바로 혹은 거꾸로, 세로, 가로로 읽어도 뜻이 성립되는 시체(詩體)
- 「탁자시(拆字詩)」 - 탁자³의 방식으로 지은 시

II. 봉사조선고(奉使朝鮮稿) 뒷부분의 여러가지 글들

- 진강보 (동팔참에 속한 구련성으로 중국과의 첫 접경지역)에서 아파 누워 조선을 적력한 일을 생각
- 귀국길에서 요동을 지나면서 여러 관원들이 마련한 연회에 참석한 기록들 - 장운주 방백과 양재성 총융이 함께 천산 조월사에서 유람하다; 장운주가 한원의 술자리에 초청하다 <주인은 손재 임관전 참용이다.>; 장, 양 두 공과 유별⁴함; 사태함 연형과 학성호 참지가 비를 맞으며 북진묘를 함께 유람하다; 영원 이인성 공이 마원의 연회에 초청해서 태함과 함께 저녁에 돌아가다; 사 연백의 어머니를 위한 절수시; 수방헌 <조용오 중승⁵을 위해 짓다>; 마감석 관찰의 정원 정자에서 술 마시고; 함께 건 양 참용이 초대하여 표해정에서 노닐다; 여미산방 <마감석을 위해 짓다>; 고죽성에서 주익아 연형과 함께 배를 타고 돌아오다; 쌍수도 <주익아를 위해 짓다>; 우소암 총영이 연못가 완재정 연회에 맞이하다; 유건암 중승과 교외에서 술 마시다; 가춘우 사마가 술자리에 초대하다; 건리암 제대와 밤에 성남루에서 술마시다; 건리옹이 북극대 유람에 초청하다.
- 호천 고은 시 - 앞날을 예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나 청빈한 삶을 살았던 유삼괴(劉三槐)에 대해 우소암에게 들어 그 덕을 칭송하는 시를 지음

³ 한자의 필획을 가감하여 편(偏)이나 방(旁), 관(冠), 각(脚) 등을 분해하거나 자체의 구성을 흩뜨려서, 이에 부회하여 길흉을 점치는 탁자 방식으로 지은 시.

⁴ 떠나는 사람이 남아있는 사람에게 작별 인사를 함

⁵ 명나라 관직의 이름

- 불교나 승려에 대한 언급이 눈에 띄 - “전생의 몸이 포금지(鋪金地: 불교에서 말하는 보살이 거주하는 금으로 덮여진 땅)를 품고 지켰으니 … “기원(祇園: 석가모니와 제자들이 설법하고 수행했던 절로서, 후대에는 절을 두루 이르는 말이 됨)의 옛 벗이 다시 모여 맹세했다.” (「허성소 도감에게 유별함」); 「산 중에 홀로 있는 승려」; “좌정한 노승은 불경외기를 내켜하지 않는다.” (「봉황산을 유람하며」); “산수유 연못에서 함께 수도할 벗(법려라는 불교 용어) 찾으니” (「소풍의 원고재」); 「장운주 방백과 양재성 총융이 함께 천산 조월사에서 유람하다」; 「용천사에서 샘물을 음미하다」; 「각산사에서 바다를 바라보다.」; 『부잡저(附雜著)』에 실린 문수보살, 무언선사, 대안선사를 칭송하는 글들.

- 기자와 명조의 예를 통한 조선의 교화 - 기자가 조선에 책봉되었고 조선은 기자에 의해 교화되어 중국의 전통을 알게 되었다는 전설에 대한 공동의 믿음은 명과 조선의 전통적 관계를 이어주는 가장 튼튼한 연결고리로 인식됨. (p. 338)

- 「김 효녀의 옛 마을 문」 - “효도로 교화하는 성조(聖朝)의 다스림이 넓혀졌고 기봉(箕封)의 옛 가르침이 오래되었다.”

- 「다시 수리한 조선 명륜당(明倫堂) 기문(記文)」

“이미 이 나라 임금의 공경하고 삼가며 법도를 잡고 있음을 보았는데, 군주를 존중하는 그 충정 어린 정성과 마음 속 깊은 곳에서 우러난 감사와 공경의 태도에는 말속에 숨은 뜻에서 가득 넘치는 바가 있다. ... 기자 성인이 남겨준 교화에 걸맞게 온화한 모습으로 삼갔으니, 깊이 생각할 만하다. 또한 우리 열성의 덕화와 교화를 점차 입어, 그 효험이 자못 있었다.”

“이 나라에 도착한 지 사흘 째 된 날에 공자의 사당을 삼가 찾아보았다. 명륜당에 오르자 성균관의 선생과 제자들이 차례로 영접하였는데, 고상하게 갖추어 삼가 따랐으니, 재능있고 현명한 유생들이 공자·맹자와 비슷함은 당연한 일이다. 집 구조를 돌아보고 쳐다보니 모두 새로 지은 것이라, 지난 날 왜구에 의해 불태워져서 근래 비로소 쉼 새 없이 일해서 일으켜 지었음을 물어 알게 되었다. 눈으로 기록을 본 바에 의하면, 이 나라 임금 거처의 무성한 풀과 기와조각, 자갈 등이 제거될 겨를도 없이 나라 살림이 쪼들려 허덕이지만, 다만 선조들의 신령을 편안히 모시고 사당을 크게 수리하였으니, 조선의 임금과 신하들이 먼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한 것이다. 그러나 예전에 하늘의 뜻으로 벌을 내린 것을 생각해 보면 왜노(倭奴)가 제 멋대로 굴어 들판에 불이 번지듯 형세가 거세어서 박멸하기 어려워 바다를 지키는 계책을 잃었으니, 비록 정해진 운수라 하더라도 사람의 일이란 허물이 없을 수는 없다. 지금은 다행히 주상의 신령한 위엄으로 다시 안정된 삶터를 갖게 되어, 군신과 부자, 부부, 형제, 봉우 등이 모여 예전처럼 지킬 수 있게 되었다.”

“협곡의 만남에서 내이를 물리치고 노나라의 위상을 더하게 한 것을 우리러 회상하면, 성인이 어찌 군사를 배우지 않았다고 해서 오로지 문사만을 일삼고 군사적 방비는 잊고 있었겠는가” - 군사적 대비를 소홀히 한 것에 대한 책망?

자신의 사신의 임무를 맡은 것도 진실로 조선을 일체로 여겨 조금도 차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명륜당의 편액을 써주면서, 조선 사람들과 인륜의 떳떳한 도리를 돈독히 하고 임진왜란의 치욕을 잊지 말 것을 기약. “정성이란 자기로부터 말미암아 남에게까지 미치는 마음이다.”라고 하면서 나라를 안정시켜서 중국 황제가 조선을 돌아보는 근심을 풀어 주기를 당부.

✓ 기자의 교화로 예의지국이 된 조선은 책봉과 조공의 예를 교환하는 명과의 관계를 유지, 강화해야 함을 강조. (p. 348)

- 「기자 무덤에 제사 지내다.」 - 구주(九疇)⁶의 격언, 팔조(八條)⁷와 정목(井牧)⁸의 남겨진 교화를 언급.

● 임진왜란 후 명말 변경지역의 정세에 대한 자순 내용들

- 「관문(關門)으로 들어가는 감회」 - 산해관을 통해 중원으로 들어가는 길에 적은 글로 “온 요동의 낙토(樂土)⁹ 가운데 파괴된 벽 적지 않고 속국(屬國)의 화려한 명성이 헛불 재에 넘겨졌다. 호사(胡沙)¹⁰로 길 나서면 호랑이 표범이 우글거리고 매우(梅雨)¹¹가 지나가면 먼지가 불어난다. 두렵고 불안한 농군(農軍)이 변경에 가득하니, 만 리 먼 곳 안정시키는 일이 특출한 인재에 의지한다.”

- 「요동의 새로 닦은 강둑길에 대한 기문」

요동을 지나는 길이 오랑캐인 여진족의 소굴과 불과 2,3 리 밖에 떨어져있지 않고 길이 험해서 “매번 여행하는 이들의 걱정거리”이며, “밭은 경작할 수가 없고 여행자도 통행할

⁶ 천하를 다스리는 아홉가지의 큰 법이라는 뜻으로, 기자가 주(周) 무왕(武王)의 물음에 대답한 것이라 한다. 《서경》의 홍범(洪範)에 기록되어 있음. 요순 임금의 정치 철학을 집대성해 만든 것으로 오행(五行), 오사(五事), 팔정(八政), 오기(五紀), 황극(皇極), 삼덕(三德), 계의(稽疑), 서징(庶徵), 오복(五福)과 육극(六極)을 가리킴.

⁷ 기자가 조선에서 시행하였다는 여덟가지 법규를 말하는데 『후한서(後漢書)』 동이전(東夷傳)의 이현(李賢)의 주석에 의하면 팔조 가운데 살인한 자는 사형에 처하고 상해한 자는 곡물로 변상하며 도적질한 자는 노비로 삼는다는 세 조목이 알려져 있다.

⁸ 토지의 구획 단위인 정과 목.

⁹ 즐겁게 살 수 있는 곳

¹⁰ 만주 사람(胡人)이 거주하는 중국 서방과 북방의 사막이란 뜻으로, 만주 사람의 사나운 기세를 이르는 말로도 쓰임.

¹¹ 초여름에 장강과 회수(淮水) 유역에 발생하는 장마로, 매실이 누렇게 익을 무렵이어서 황매천(黃梅天)이라고 한다.

수 없어 모두 이를 걱정하고 고통스러워한 지 오래되었다고 한다.” 고 하면서 사신의 임무를 마치고 명으로 돌아가는 길이 어려울 것을 미리 걱정.

명으로 돌아가는 길에 막상 도착해보니 잘 정비되어 있었는데, 험한 길을 닦고 고르는 일을 맡은 이들을 만나 전말을 듣고 공로가 있는 이들의 이름을 모두 열거하여 치하함. “이번의 거사로 세 가지 이익이 함께 거두어졌으니, 농사짓는 이는 보금자리에 안주하고, 여행하는 이는 평탄한 곳에서 노닐며, 지키는 이는 높고 깊은 곳에 의거할 수 있게 되었다.”

- 「우소보(尤少保) 총융(總戎) 생사(生祠)¹² 기(記)」 - “사명을 받들고 조선을 타이르러 갔다가 돌아오면서 경유한 곳은 모두 군인과 민간인이 섞여 사는 막히고 험한 요충 지역이지만, 전투하는 일은 보이지 않고 모두 생계를 위해 힘쓰고 있어 대체로 한적했다.”

● 우계선(尤繼先) 대장군의 업적과 성품을 높이 칭송하는 시

- 「삼둔진 성의 남쪽에 있는 경춘산은 가장 높고 가파른데, 그 위에 성모궁이 있지만 규모가 작고 기반이 무너졌다 소보(少保) 우계선(尤繼先)¹³ 공은 막부의 비용으로 충당하기 위해 향과 공물을 조금도 거두지 않아, 따르는 무리는 개혁하기를 원했다. (나) 지번은 사명을 받들어 조선에 다녀오는 길에 尤 공을 배알했는데, 그 일을 기록해 달라고 부탁해서 시로 남기게 되었다.」

- 「우(尤) 대장군(大將軍) 찬(贊)」 - 젊은 시절부터 용맹한 장수로 이름을 떨쳤으며, 성품이 너그럽고 진실되어 어려운 백성들을 돌보고 풍속을 아름답게 하는 한편 악행은 단속하고 형벌을 신중하게 하여 모두가 우러러 보았음을 칭송.

- 「우소보(尤少保) 총융(總戎) 생사(生祠)¹⁴ 기(記)」

“백성을 잘 다스리는 자는 반드시 백성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할 수 있어야 백성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 ... 남이 알지 못하는 걱정을 몰래 품고 좋은 장수에 대해 깊이 생각하면서 돌아오는 길에 삼둔에 이르렀더니 물산이 풍부하고 인구가 많은 경관이 빠르게 지나쳐 보였다.” 동네 중심 역할을 하는 노인들 수십 백명이 나와 청하기를 우공(尤公) 덕택에 백성들 평화롭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어 그 복을 기원하고 덕에 보답하기 위해 사당을 세웠으니, 비석에 기록해서 영구히 게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음.

주지번은 자신이 소암 우계선과 문자로써 친교를 맺은 지 오래되었음을 밝히며, 우계선의 용맹함과 (“부자가 모두 전투를 잘해서 관룡 지방에 명성을 떨쳤고, 금창(金瘡)이 온 몸에

¹² 공덕이 있는 사람을 높이 사모하여 그가 생존하고 있는 중에 제사지내는 사당

¹³ 호는 소암(紹菴)으로 명나라 고원 총병관을 지낸 장군.

¹⁴ 공덕이 있는 사람을 높이 사모하여 그가 생존하고 있는 중에 제사지내는 사당

나있어 이로(夷虜)¹⁵가 그 이름을 알았다.”) 장수로써의 지혜와 덕을 칭송 (“마음을 다해 경계를 갈라 정하고 온 힘을 다해 앞장서서 외치면서 열 가지 일을 조목조목 써서 올려 쌓인 폐단을 척결하였고, … 유약한 무리로서는 호랑이와 이리를 막아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이공이(以夷攻夷)’¹⁶를 위해 이정(夷丁)¹⁷을 불러들여 어루만져 고기비늘처럼 많이 줄을 이어 모이게 하고, 진심으로 대하여 심복으로 삼고, 은혜를 베풀어 법을 엄하게 하여 거처를 안정시켜 그 땅을 얻게 하니, 마을에서는 조그마한 소요도 일으키는 자가 없고, 계(蕝) 이북의 오랑캐들은 한 발의 화살도 날리지 않았다.) 또한 과도한 세금의 폐해를 없애고 가난한 백성들을 구제하고,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들을 단속하는 일에도 힘썼음도 언급.

“충효의 큰 지조가 있고 청렴하고 지혜로우며 원대한 뜻과 포부를 갖고 있어, 마음속으로 바라는 일이 하나 있으면 이를 하늘에 맹세해서 인심을 감동시켰지만, 정말 지나치거나 가로막을 수 없고 널리 선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손뼉 치며 유쾌하게 선 채로 이야기하면서 마음 터놓고 모여 진심을 모두 드러내 보이며 나라 위해 백 번 꺾여도 굽히지 않는 것이다. 이는 그가 공을 세우고 덕정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은 매일 그에 의지하면서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것이다.”

● 허균과 허난설헌에 대한 기록들

- 「양천세고(陽川世稿)의 題文」 - 양천 허씨의 역대 문장을 모은 문집에 대한 글로, 조선에 사신으로 파견되어 당대의 명현(名賢)들과 창화 한 것이 아주 많았는데 허성, 허균이 그들 가운데 있었음. 선대의 글뿐 아니라 누이인 난설헌의 유고까지 더하려고 했다고 기록.
- 「난설헌시집(蘭雪齋詩集) 소인(小引)¹⁸」 - “규방에서 예쁜 꽃 봉우리를 따서 그려낸 아름다운 문장도 천지 산천이 모은 정령으로, 강요할 수도 없지만 막아서 못하게 할 수도 없는 것이다. … 모두 장부가 하기 어려운 일을 한 여자가 힘써 해냈으니, 정말 천고에 남을만한 일이다. … 더러운 속세 밖에서 가볍게 날아오르며 아름답되 화려하지 않고 부드럽되 뼈가 있는데, 선계에서 한가로이 노닐 여러 작품들이 이런 종류에 속한다.” 난설헌을 뜻하지 않게 하늘에서 쫓겨난 선녀들에 비유하여, “옥루(玉樓)하나 짓고 난서(鸞書)¹⁹로 두루 불러 남은 먹을 과감하게 뿌리니, 모두 주옥이 되어 인간 세상에 떨어져 오래도록 오묘한 감상거리가 되었다.”라고 극찬.

¹⁵ 비중국계 인구를 낮추어 부르는 말

¹⁶ 오랑캐를 오랑캐로 공격한다는 뜻.

¹⁷ 오랑캐의 장정

¹⁸ 짧게 쓴 인(引)이란 뜻으로 인은 당대 이후에 생겨난 문체로 대체로 서(序)와 비슷하다.

¹⁹ 서신의 미칭.

III. 동방화음(東方和音)

- 류근은 창화의 즐거움을 나타내며 주지번이 신선같은 유자(儒者)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창화시에서 내내 주지번을 ‘하늘에서 내려온 신선’으로 대접
 - 허균의 기록에 따르면 류근은 정사 주지번과 부사 양유년을 접대하며 수창하느라고 달빚다고 함. (p. 322)
 - “하늘에서 신선이 조서 들고 동쪽 해 돋는 곳에 내려왔다.” (「압록강을 건너며」); “유선(儒仙)과 함께 이야기하니 정말로 백중이고, 신기한 보검 뒤따라 아니 자웅이 있다.” (「소관관(所串館)으로 가면서」); “두분 신선을 기다리는 꽃이 붉은데…” (「화답하는 글을 받들어 여러 번 엄숙하게 읊조리다가, 삼가 잡스러운 글을 지어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표하고, 침착해 주시기를 우러러 기대한다.」); “신선과 범인 가는 길이 비록 달라도, 손님과 주인의 뜻은 모두 진하다.” (「앞의 운을 다시 사용하여 아름다운 글을 더럽혔는데, 어제 환영하며 위로하는 연회에서 외람되어 글을 받아, 마음속에 있는 감사의 정을 글로 표현한다.」)
 - “신선의 무리가 멀리 중조(中朝)에서 이르니, 하늘 음악이 천상 세계에서 들려오는 듯하다.” (「신안관(新安館)」)
 - ✓ 주지번: 「당어령(堂於嶺)을 지나 정주(定州) 신안관(新安館)에 들다.」 - “어지러이 풀린 풀빛이 자리 깔고 누웠고, 난잡한 향음(鄉音)²⁰이 노래 박자에 맞춰 들린다.”
 - ✓ 류근은 하늘 음악이라고 풀었던 반면, 주지번은 난잡한 한국말로 풀어냄.
 - “하늘 신선이 홀(笏)²¹로 턱 괴니 호쾌한 기운이 넘치고… 옛날에 방장²²이라 부른 것이 삼한(三韓)에 있어 봉래²³의 선인들이 놀란 눈으로 서로 본다.” (「제산정(齊山亭)」); “신선의 손톱으로 등 긁는 것처럼 시원하니, 구절마다 높이 나는 듯 말의 뜻도 호방하다.” (「대동강(大同江)」);
 - “골짜기 안에 신선 있어 지금은 보이지 않다가 문득 생학(笙鶴)따라 높이 낮은 공중에서 내려온다.” (「동선령(洞仙嶺)」); “하늘 신선 여기와서 마음껏 신유(神遊)한다.” (「동선관(洞仙館)에서 묵으며」)

²⁰ 시골 사투리란 뜻으로 여기서는 한국어를 지칭.

²¹ 주홀간산(拄笏看山)의 준말로 홀(笏:신하가 임금을 뵈 때 조복에 갖추어 손에 쥐는 물건)로 턱을 괴고 먼 산을 바라 본다는 뜻으로, 관직에 있으면서도 한가하고 고상하게 지내는 것을 말한다.

²² 신선이 산다는 동해의 삼신산 가운데 하나

²³ 방장과 더불어 삼신산을 이루는 신선의 경역

- ✓ 주지번 시의 대구들: “분명하게 인간 세계와 아득하게 떨어졌으니, 유랑(劉郎)을 잘못 이끌어 들어오게 하려는가.”; “영묘한 골을 찾아 참되게 노닐고 싶다 한다.”

- 재조지은(再造之恩) - 임진왜란 때 망국의 위기에 처한 조선을 명이 도와 사직을 잇게 한 것을 가리키는 것

- 「조서가 의주에 이르자 번개 치고 비가 내리다」 - “삼한이 재조 되었다. 은혜를 굽이 입어 오로지 감격해서 감히 장주(章奏) 꺼린 것이 너무나 빈번했다.”

- 「동림고성을 지나며」 - “용과 뱀이 근래에 환란을 만났다가, 천자의 위엄에 의지해서 나라를 다시 일으켰다. ... 사시사철 넓고 크게, 따뜻한 바람 불기를 길이 축원한다.”

- 「차유령(車踰嶺)」 - “소방(小邦)은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 입어 생성하였는데, 해대(海岱)에 갑자기 요사스런 기운 퍼졌음을 알게 되었다.”

- 「앞의 운(韻)을 다시 사용하여 아름다운 글을 더럽혔는데, 어제 환영하며 위로하는 연회에서 외람되어 글을 받아, 마음속에 있는 감사의 정을 글로 표현한다。」 - “세 번 호소한 것은 만국이 다 같지만, 재조(再造)는 많은 악공 중에서도 특별하였다. 우물 속 개구리의 가슴은 확 트이지 못했지만, 눈 위에 난 큰 기러기 발자국은 알맞게 찍혀 있다.”

- 「조서가 평양으로 들어가다」 - “머리 숙여 간(肝)에 새기며 감사의 마음 받드니, 두루 살리는 특별한 은혜가 만백성을 넉넉히 한다.”

- ✓ 주지번: 「4 월 그믐에 비가 조금 내렸다. 조서가 평양으로 들어갔는데, 춤추는 대열이 대단히 불만해서 구경하는 사람들이 길을 막았다. 이에 시를 지어 이를 기록해 둔다。」 - “성주께서 지켜주시니 은혜가 넓고도 크고, 동덕의 어짊이 풍성해서 백성들을 구제한다.”

- 「벽제(碧蹄)를 새벽에 떠나다」 - “단혈(丹穴)의 상서로운 새가 빛나는 언덕 떠나서, 어서 품고 갑자기 해동 끝에 이르렀다. ... 동번(東藩)의 재조(再造)에 황제의 보살핌이 있었으니, 지금부터 춘대에 즐거움이 크고 빛나리라.”

- ✓ 주지번: 「벽제(碧蹄)“를 새벽에 출발하다。」 - “천가의 행복과 경사가 겹 울타리를 여니, 일찌감치 수레 타고 은혜 나누러 바다 끝 다다랐다. ... 장엄한 성 멀리 바라보니 백치나 우뚝 솟고, 사방이 환호하며 흡족하니 천하태평을 보게 된다.”

- 「구현(駒峴)」 - “삼한(三韓)을 재조(再造)하여 오늘이 있게 하니, 천년에 한번 있는 요순 같은 임금이다. ... 동국 백성이 언제나 덕택에 감사해 함을 기록해 주기 바란다.”

- ✓ 원접사가 오히려 명사의 자순 기능을 이용해서 외교적 효과를 극대화 하려는 노력이 엿보이는 흥미로운 대목. (p. 333)

- 문학적 교감과 상대의 문학적 역량을 높이 평가하여 칭송

- 주지번: 「유서경이 ‘도중에 만난 눈에 대해 지은 시’를 화답하였기에, 다시 화답하여 드린다.」 - “채색 붓으로 붉은 노을을 쓰고, 그대에게 돌려주니 소매 안에 품었다. ... 감미로운 장마 비가 **속국**에 퍼지고, 따뜻한 햇살이 엄동에 비쳐진다. 전대에서 전해진 당음(唐音)²⁴이 입에서 토해지고, 연이어 엮인 영조(郢調)²⁵가 정교하기 그지 없다. 서툰 내 글 솜씨가 부끄러워서, 포식한 배 어루만지며 글 비워서 숨긴다. 잘못된 감상으로 품평 늘어놓는다면, 장차 좋은 화룡(畫龍)²⁶은 없게 되리라. 왕사의 일정이 늘어진 고삐 같아, 시문 주고받으며 구름 봉우리 향해 간다.”
- → 류근: 「이(夷)를 비루하게 여기지 않고 옥 같은 글을 써주신 은혜를 외람되어 입었는데, 또 다시 진기한 선물을 옥되게 받았으니,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벽옥을 품게 될까 걱정된다. 예전에 천조의 크신 군자들께서 여기에 이르렀을 때, 맞이하는 신하들 가운데 혹은 창하기도 하고 혹은 화하기도 했지만, **상국(上國)**의 연도에서 지은 것은 감히 뒤따라 화답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지금 받은 이 성대한 은혜는 실로 들은 적이 거의 없는 것이어서, 황량하고 누추한 능력을 헤아리지 않고 곧 부채 위에 화답하였다. 3월 17일 보잘것없는 경양(景仰)²⁷의 뜻을 시운으로 조금이나마 돌려 바친다.」 - “상서로운 비단의 현란한 기린이 붉은데, 지함이 천자의 대궐에서 나왔다. 얼굴 빈지 며칠밖에 되지 않았지만, 편편이 인자한 바람을 흩뿌린다. 문장이 한 시대의 으뜸이고, 온 집안의 고상한 기상이 농밀하다. 특별한 은혜가 **하국**에 베풀어지고, 큰 경사가 지난 해 겨울에 있었다. **지음(知音)**²⁸이라 감히 말하며 완상했으니 ... 세련되고 함축된 뜻이 깊어 사람을 감동시키는 글귀는 한편 한편이 옥과 같고, 고결하고 고상한 글귀는 한자 한자가 용과 같다. 평생토록 독보적인 학문을 사모했더니 **무이봉(武夷峯)**²⁹을 빨리도 보게 되었다.”

- ✓ 본격적인 창화가 시작되는 시점

²⁴ 중국어, 혹은 당시(唐詩)와 그 풍격, 당(唐)나라 때의 잘 지은 시를 뽑아 엮은 책의 이름

²⁵ 고상한 곡조

²⁶ 유명무실하거나 걸만 번드레한 사물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

²⁷ 덕을 사모하여 우러러 봄

²⁸ 시문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정확히 평가함을 이르는 말이며, 마음이 서로 통하는 친한 벗이나 동지를 비유하여 이르는 말로도 쓰임.

²⁹ 북진성 무이산시 남서쪽에 있는 산으로 신선인 무이군이 살았다고 전해짐. 빼어난 경관의 36 봉우리와 37 바위 및 굽이굽이 흐르는 시내가 청계구곡(淸溪九曲)을 이룬다.

- 주지번: 「다시 류서경에 화답하다.」 - “짧막한 말 던져 와서 하나가 되고, 나누는 정이 속세 밖에서 무르익는다. 떠듬거리는 나는 번개같이 빠른 말 쫓아가기 어려우니, 큰 소리로 잘 말해달라고 넌지시 권할 뿐이다. … 충심으로 감복하여 자주 표범 무늬 옷보았더니, 재주가 웅결하여 용을 길들일 만하다. 동방에는 우뚝 솟은 봉우리가 적지 않지만, 그대는 가장 높은 봉우리로 꼽혀지리라.”

- → 류근: 「화답하는 글을 받들어 여러 번 엄숙하게 읊조리다가, 삼가 잡스러운 글을 지어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표하고, 철삭해 주시기를 우러러 기대한다.」 - “사해가 이제 한 집안이 되었고³⁰, 천리가 본래 같은 풍속 이루었다. 북극의 단서가 환하게 빛나고, 동쪽으로 온 자색 운기가 농밀하다. 승사 한때가 팔월인가 했더니, 넓고 정밀한 학문이 삼동보다 풍성하다. … 하늘 위의 장공자요, 구름 사이의 육사룡이다. 인생에서는 지기(知己)가 귀한 법이니, 누가 구의봉과 마주하겠나.”

- 주지번: 「류서경에 세번째로 화답하다.」 - “천천히 가는 나그네는 문장이 으뜸이고, 갹수(賸酬)³¹는 당대에 견줄이 없을 만큼 뛰어나다.”

- → 류근: 「선물을 여러 번 받았을 뿐만 아니라, 권하여 가르치는 은혜도 입었기에, 감격과 부끄러움이 모두 극에 달하여, 삼가 앞의 운(韻)을 써서 감사의 마음과 정성을 대략 서술하니, 잠시 봐주기를 바란다.」 - “가볍게 나는 메추라기 스스로 비웃으며, 아래위로 용을 뒤쫓아 간다.”

- 주지번: 「류서경에 네 번째 화답하며, 신안관(新安館)의 연락(讌樂)에 대해 적어둔다.」 - “뻑뻑하게 겹쳐진 의장(儀章)이 장엄하고, 살뜰하게 정성 다하는 예의(禮意)가 농밀하다. … 고니처럼 우뚝 선 추상(樞相)이 수고롭고, 물오리처럼 종종걸음 걷는 장인들이 많이 모였다. 함께 모인 이 자리는 성황을 이뤘지만, 부끄럽게도 전대(專對)³²는 한 것이 없다. … 도량 넓은 그대가 어려운 구절 헤아릴 테니, 재미삼아 기이한 봉우리 걸어가 본다.”

- → 류근: 「앞의 운(韻)을 다시 사용하여 아름다운 글을 더럽혔는데, 어제 환영하며 위로하는 연회에서 외람되어 글을 받아, 마음속에 있는 감사의 정을 글로 표현한다.」 - “신선과 범인이 가는 길이 비록 달라도, 손님과 주인의 뜻은 모두 진하다. … 세 번 호소한 것은 만국이 다 같지만, 재조(再造)는 많은 악공 중에서도 특별하였다. 우물 속 개구리의 가슴은 확 트이지 못했지만, 눈 위에 난 큰 기러기 발자국은 알맞게 찍혀 있다.”

³⁰ 사해일가(四海一家)요 천리동풍(千里同風)임은 책봉과 조공의 예를 교환하는 국제질서를 표현하는 상투적인 말 (pp. 326-327)

³¹ 남의 시구를 주고 받음

³² 외국에 사신으로 가서 혼자서 능히 상황에 대처, 응대하는 것을 의미

- 「삼청각(三清閣)」 - “기침과 침³³이 갑자기 놀랍게 천상에서 떨어지니, 삼청³⁴이 쓰고 낚아서 충분히 푸르다.”
- 명사가 자순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돕기 위해 조선의 풍물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 (p. 328)
 - 「동로하(東路河)를 지나며」 <강의 좌우에 예전에는 황야가 있었고 백성들은 경작해서 먹을 수가 없었는데, 근래에 수로를 파서 물을 대어 백성이 그 이익을 입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를 언급한다.> - “밭가는 일이 황제의 힘으로 이뤄지고, 심어 가꾸는 일이 여름 경작에 까지 이르렀다.”
 - 「김효녀의 옛 마을 문」 - 중국 사신이 조선에 이르면 반드시 곽산(郭山) 김효녀의 옛 마을 문을 지나가며 이를 칭송하는 것이 관행 (p. 329)
 - 「차유령(車踰嶺)」 - “언제나 머리 숙여 천자를 축원하는 백성 되었으니, 풍속을 채집할 때 혹시 조풍 회풍³⁵도 엮으시나. ... 먼길 온 사신의 빼어난 시구가 하늘 동쪽에 머문다.”
 - 「고려의 옛 궁궐」 - “흔적 사라진 뜰이 큰 변화를 보여주고, 숭고한 뜻 남긴 전각이 귀신의 아픔을 위로한다. ... 한 집안인 사해(四海)가 성대(聖代)를 만났으니, 평탄하고 습한 지역 따라 민풍 채집하였으면.”
 - ✓ 주지번: 「고려의 옛 궁궐」 <개성 안, 송악 아래에 있다.> - “삼한을 모두 싸서 한 시대를 누렸는데, 몇 겹의 황량한 언덕 옛 궁터를 가리킨다. 십 년 동안 뼈까지 놀랐다가³⁶ 이제 겨우 모우고 기르니, 천고에 넋을 잃고 함께 원망하고 슬퍼했다.”

³³ 어른의 말씀, 혹은 훌륭한 시문.

³⁴ 도교에서 말하는 천청(天淸)과 지청(地淸), 인청(人淸) 등 세 신, 혹은 신선이 산다는 옥청(玉淸)과 상청(上淸), 태청(太淸)을 말하며, 흔히 도교의 궁관(宮觀)이름으로 쓰임.

³⁵ 조선을 춘추시대 약소국인 조국과 회국에 비견하여 스스로 낮춰 말한 것.

³⁶ 조선이 최근에 겪은 임진왜란